

#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

자오 이펑 (중국 동북사범대학)

## 발표 요지

중국, 한반도와 일본의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 문제를 토론할 때,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공체제’로 이 시기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이해해 왔다. 먼저, 본문에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중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아울러 당시 청조와 조선의 관계가 청조와 일본의 관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조공체제도 당시 ‘동아시아’의 비교적 평화로운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련 개념과 방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약력

〈자오 이펑 (趙軼峰)/Zhao Yifeng〉

1953년 내몽골 카이루현(開魯縣) 출생. 동북사범대학 역사학 학사, 석사, 캐나다 앨버타대학 역사학 박사.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동방사범대학 역사학부강사, 조교수, 1989년에서 1999년까지 캐나다 브랜튼대학 객원교수, 앨버타대학 방문학자, 강사. 2000년 이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 부학부장, 명청사연구소장, 화남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 개남대학 역사학부 교수, 동북사범대학 출판사 학술위원회 주임, 역사문화학원 교수, 아시아문명연구원장, 『고대문명』 편집장 등을 역임. 연구분야는 명청사, 사학이론, 비교문명사, 대표저서에는 『中国古代史』(공편, 高教育出版社, 2002, 2010), 『明代国家宗教管理制度と政策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明代の变遷』(上海三聯書店, 2008), 『学史叢録』(中華書局, 2005), 『クリントン弾劾とアメリカの政治文化』(中国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2판), 『明清帝制農商社会研究(初編)』(科学出版社, 2017), 『<明夷待訪録>注説』(河南大学出版社, 2017). 번역서로 『グローバル文明史』(中華書局, 2006)이 있다. 그 외 약 1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